

# 나주시, 주민 의견 수렴 영산포 흥어거리 새단장

남도음식거리 시설물 제작 설명회  
흥어 캐릭터 조형물·간판 설치  
만족도 제고 원산지 표시 준수  
흥어거리 미화·물청소 날 운영

나주시가 남도음식거리로 재탄생할 영산포 흥어 거리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나주보건소에서 흥어 거리 판매·음식점 업주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상인,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명품 음식거리 조성을 목표로 흥어거리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 등에 총사업비 10억원(도비50%·시비50%)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은 '흥어캐릭터 조형물 설치', '디자인 간판 제작', '스토리텔링 안내 표지판·포토존 설치' 등이다.

나주보건소는 참석하신 상인들에게 '흥어거리 미화의 날', '물청소의 날' 운영,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등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 사항을 안내, 서약서 서명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상인, 주민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영산포 흥어거리는 전통 속성 흥어의 맛뿐 아니라 경관과 문화적인 매력까지 더해진 종합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지난 7일 영산포 흥어 거리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주시 제공

한편 흥어거리는 흥어를 주제로한 특색 있는 장소로 전남 지역의 강한 바람과 습도, 적당한 온도 덕분에 흥어의 숙성 조

건에 부합해 흥어를 발효·숙성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

나주=김용의 기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화순군, 구매비용 50% 보조

화순군은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녹비 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등 구매비용을 보조 50%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고 지역경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다만 유기 인증 농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녹비종자의 경우 ha 당 최대 헤어리베치 60kg·녹비(청)보리 140kg·호밀 160kg·수단그라스 50kg에 사업비 50%를 지원하며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를 ha 당 유기 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관행 농가 100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 시가지 활용 주차장 조성 함평군, 주차난 해소 목표

함평군이 함평읍과 손불면 시가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함평읍 하나로마트 인근과 전통시장 주변의 유휴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왔다. 최근에는 함평읍 에이스노래방 뒤편(함평읍 내교리 일원)과 손불면 소재지의 방치된 폐가(손불면 대전리 일원)를 정비해 각각 20대와 17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총 309면의 주차 공간을 새로이 확보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은 깨끗한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본 사업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제2회 담양군 무정면 은행나무축제에 1500명의 방문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들이 민민 노래자랑에 참여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제2회 무정면 은행나무축제 성황

1500여명 참석 다양한 행사 호평

지난 9일 담양군 무정면 무정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4 제2회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가을 아래, 유정(有情)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천연기념물이자 무정면 대표 관광 콘텐츠인 봉안리 은행나무를 주제로 주민들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향토 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 곡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산 차단 총력

전방위적 방제 대책 추진

곡성군은 곡성을 죽동리 연접한 교촌리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초동 대처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7그루가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발생 현장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도, 인근 시·군과 함께 긴급 중앙 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

했다.

무정면은행나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일남)가 준비한 이번 축제는 축산농악 공연과 민민들로 이루어진 라인댄스 동아리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음악회 및 민민 노래자랑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제는 △은행잎 천연비누 만들기 △은행 놀이 버스 △전통차 시음 체험 △민합죽선 수목화 그리기 체험 △향토음식 시식 체험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으로 축제장을 채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 사진 공모전, 향토 은행잎을 찾아라! 행사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도 호평받았다.

정일남 무정면은행나무축제추진위원장은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가 향토 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무정면 은행나무 축제가 지역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전통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농촌 왕진버스 운영 장성군, 의료 소외지역 해소

장성군이 지역농협과 함께 운영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한방, 구강, 눈 검사 등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장성군, 농협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장성·삼서농협이 각각 주관해 총 4차례 운영했으며 협력기관인 장성병원 의료진이 참여했다.

1~3차 농촌 왕진버스는 앞선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행했다. 장성읍과 서삼·북일면에서 1400여 명의 주민들이 왕진버스를 찾았다.

4차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 5~7일 삼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약 350명의 삼서면민들이 방문해 건강 상담, 영양제 수액 처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 수요가 큰 만큼, 농촌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에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특성이 있다.

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즉시 고사목 벌채를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예방 주사를 놓는 등 전방위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래 군수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산림과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